전법 일기

마음 하나 바꾸니 학생들이 찾아왔다

2023년 7월 통도사 대학생 전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여름내 나의 화두는 영산대학교 학생들에게 불연을 맺어주는 것이었다. 물론 웅장원이 통도사포교소로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대학생·청년 전법에는 제법 부담이 컸다. 그래도 불교의 희망을 만드는 불사라 생각하고 뛰어들었다.

두 달여가 지난 2학기 개강일,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아침 8시에 교내로 들어갔다. '불교동아리 창립 회원모집' 안내판을 걸어놓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친절히 홍보하려던 참이었다.

더위는 여전한 상황에서 교내로 셔틀버스 한 대가 매연을 뿜으며 들어왔다. 환한 미소로 불교동아리 창립과 가입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나 시큰둥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보이지 않고 음료를 건네는 손길을 외면하며 돌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에 점점 내 표정은 굳어만 갔다. 오후까지 기다려 고작 5명의 가입 신청을 받았고, 텅 빈 회원명부에 괜히 내 마음도 상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가. 터덜터덜 절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은 어떻게 전법을 하셨을까?'

다음날 아침, 어제와 같이 당혹스러운 일이 없도록 서둘러 교내로 갔다. 거울을 보며 연신 웃는 인사 연습을 하고 마음을 챙겼다. 내가 어색해서 학생들도 어색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 오늘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하며 보살님들과 원활한 홍보를 하기 위해 업무를 분담했다. 다만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억지로 회원가입을 강요하지는 말자는 것뿐이었다.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강의실로 들어갔을 때 나는 밀짚모자를 쓰고 각 단과대학을 찾아갔다. 학생회관 게시판에 불교동아리 홍보 전단지를 부착하면서 학생들과 직접 만날 기회를 기다렸다. 땡볕에 모든 건물을 돌고 나니 팔다리에 힘이 빠져 한동안 의자에만 앉아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보험설계사가 나를 보고 판촉을 했다. 그 모습에서 내가 보였다. 나도 저랬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강의실에서 나온 학생들로 교정이 붐비기 시작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료를 마시는 아이들에게 손짓을 했다. 그동안 불교동아리 가입에만 혈안이 돼 아이들을 봤다면, 이때부터는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앞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고, 시간을 할애하며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생활할 학생들이 가여웠다.

셔틀버스 정류장을 오가는 학생들, 점심을 먹으러 나온 학생들에게 그저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 후식 먹고 가요!" "쉬면서 공부해요. 힘내요!"

그렇게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불교동아리에 24명이 가입했다. 이심전심이구나. 내 마음이 훈훈하니 너도 그렇구나. 동아리 창립에만 매몰된 내 마음이 불안한 청년을 어떻게 보듬어줄까 하는 마음으로 바뀐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됐다.



통도사포교소 웅장원
덕현 스님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① 황벽 선사 오도송 '뼛속까지 사무친 뒤라야'

시련을 이겨야 행복 얻는다

뼛속까지 사무친 뒤라야

번뇌를 끊는 수행 예삿일 아니니
(塵勞迥脫事非常)
소코뚜레를 고삐로 매어 길들이듯 하라
(緊把繩頭做一場)
한 번은 눈서리 찬 기운이 뼛속까지 사무친 뒤라야(不是一番寒徹骨)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 맡을 수 있으리
(爭得梅花撲鼻香)

출전: 고문집(古文集)

'깨달음의 노래'는 구도자의 오도송(悟道頌)을 뜻한다. 깨달음의 세계를 읊은 선시(禪詩)를 문자 사리(舍利) 또는 문자반야(般若, 지혜)라고도 한다. 선시란 깨달음을 주제로 읊은 불교시도 넓게 포함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오직 깨달음을 일차적 수행 목표로 삼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을 종지로 삼는 선종(禪宗)의 시가를 말한다.

선시는 시와 선의 만남이다. 중국에서 선종이 성립되어 발전하면서 선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의 형식을 빌려서 자신이 경험한 깨달음의 경지를 게송(偈頌), 한시로 표현했다. 당나라 때는 재가불자인 시불(詩佛) 왕유(王維), 백낙천, 한산(寒山), 습득(拾得) 등 선취(禪趣)가 절정에 이르러서 선시의 시론과 풍격이 일반 시에 영향을 주게 됐다.

우리나라도 고려 무신정권 때 조계 선종이 성립되면서 〈선문염송〉을 지은 혜심(慧諶)의 〈무의자시집〉(우리나라 최초의 선시집) 이후 나옹, 휴정, 초의 등 선시승(禪詩僧)이 출현했다. 그리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불교시집) 이후 서정주, 조지훈, 조오현, 고은, 천양희, 오세영 등 기라성 같은 시걸이 나와 시단을 이끌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시단의 추세는 선시의 열풍이 지배하고 있다.

수행, 묵은 습관 변화시키는 과정
뼈를 깎는 인내가 있어야 가능해
영산홍이 빨갛게 피어나기 위해선
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한다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시인들의 한시와 현대시 중에서 명품 선시만을 뽑아서 소개하기로 하겠다.

'뼛속까지 사무친 뒤라야'의 칠언절구는 황벽(黃蘗)선사의 오도송이다. 인구(人口)에 회자(膾炙)하는 유명한 선시이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번뇌 망상을 없애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이고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확암 선사의 〈십우도〉에 잃어버린 소를 찾은 후 네 번째 '득우(得牛)' 단계에서 난폭한 소에게 고삐를 매어 자기 쪽으로 힘껏 끌어당겨 소를 길들이는 수행의 방법이 있는데, 황벽선사는 시의 도입부인 1구와 2구에서 이를 인용하여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어록에 나오는 선문답이나 공안 화두를 인용하여 쓰는 형식의 선시를 송고시(頌古詩)라고 한다.

수행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오래 묵은 습관을 변화시키는 환골탈태의 고행이다. 한 번은 죽었다가 새로 살아나는 뼈를 깎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시인은 3구와 4구에서 "한 번은 눈서리 찬 기운이 뼛속까지 사무친 뒤라야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 맡을 수 있으리"라고 읊었다. 절창이다.

영산홍이 봄에 곱고 빨갛게 피어나기 위해서는 겨울에 차가운 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한다. 우리의 인생도 시련이 부딪칠 때 온 몸으로 싸워서 극복해야만 행복의 과실을 얻을 수 있다.

구도자의 피나는 수행 과정을 고고한 품격과 지조를 지닌 매화에 비유했다. 깨달음을 매화 향기로 상징해 갈무리하면서 독자에게 투철한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는 전쟁 중이고 우리나라도 정치와 경제가 위기다. 우리 교단도 사부대중이 화합과 인욕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때이다. 갑진년 용의 새해가 밝았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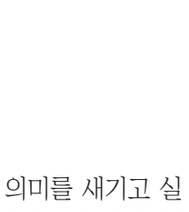
성도절 의미를 새기고 따르자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이 깨달은 날을 기념하는 성도절이다. 올해 성도절은 양력 1월 18일이다. 예부터 전국 사찰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신도들이 철야기도를 하고 참선하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절답게 공연을 펼치고 부처님 제자인 수행자를 공양하며 함께 축하했다. 분위기가 차분해진 것은 코로나19 이후다. 함께 모여 법회를 보고 기도를 하던 행사가 전면 중지되면서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행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올해부터 전국 사찰에서 철야기도와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고 하지만 예년 같지 않은 분위기다. 정신없이 바쁜 신년 초이기도 하고 노령의 불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철야를 버거워하는 분위기도 있어 자연스럽게 축소하게 됐다는 게 사찰 측의 설명이다. 또 현장 법회가 재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코로나19 3년 동안 앱과 온라인 법회에 익숙해지며 현장 참여율을 예전으로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그 이유다.

그렇다 해도 성도절의 의미를 새기고 실천하려는 의지마저 약해져서는 안 된다. 불교 가르침에 비춰보면 성도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하다. 탄생은 완벽한 인간을 구현하는 시작이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진리를 체득·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삼보(三寶)는 부처님 성도를 통해 이뤄졌고 진리를 찾는 순례가 시작됐으니 이를 명절로 삼아 기리고 실천하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한 도리다.

이번 성도절에는 인간이 스스로의 주인임을 실제 보여준 부처님 성도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첫발을 딛는 거룩하고 역사적 순간을 찬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전한 가르침을 떠올리며 함께 발심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사고가 집어삼킨 다리…
남은 건 치료비와 병든 아버지

스리랑카 이주민 시란씨, 손가락 이어 다리마저 절단
4000만원 병원 빚 감당 못해 퇴원…하루 한 끼로 버텨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